

# 세계최대규모 '수석박물관' 순천에 들어선다



순천에 들어서게 될 민간자본의 세계 최대규모 수석박물관이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이 한창이다. 순천시 삼사면 구 미림수목원 자리

### 공원 조성 등에 350억원 소요 순수 민간자본 수석·땅 매입...12월 개관 순천시, 수석박물관 부지에서 현장 간부회의 열고 관광객 유입 방안 논의

에 들어서는 '순천세계수석박물관(관장 박병선)'은 2만 7000평(8만 9100㎡) 부지에 세계 최초로 테마별 수석 박물관으로 모습을 보인다. 순천시청 사무관으로 명퇴한 후 순천시시원을 역임한 박 관장이 지난 40여 년 동안 모은 8000여점 중에 명석들만 골라 보석관, 동물관, 식물관, 풍경관, 기록관, 불교관, 폭포관, 예로관, 숫자관 등 총 12관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조각 작품 300여점과 순천시와 철쭉 60만주, 300여 그루 관상수목 등 조경과 300여개의 조각 공원, 호수와 폭포·자연석으로 이뤄진 공원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한 개에 수십 억 원을 웃도는 수석도 있고, 지금은 외부 반출이 금지된 중국 동굴에서 나온 몇 억만년 된 5m 크기의 용유석들의 자태는 단연 으뜸이다. 지금까지 진귀한 수석 등을 매입하

는데 들어간 비용이 180억 원에 이르며,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들어간 비용까지 자그마치 35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박물관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80% 상태로, 아직 정식적인 개장이 아님에도 그의 작품은 지상과 방송에 30여회 방영 될 만큼 이미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지난달 허석 시장과 시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석박물관 부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관광객 유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한층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023년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민간의 우수 개발정원을 연계한 코스 및 관광 상품 개발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장을 둘러본 허 시장은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수백억을 투자해 대규모 예술단지를 조성하는 모습은 남다른 열정과 목표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놀라운 결과물이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라"고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희귀 수석을 본 공무원들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각종 문양이 새겨진 돌을 직접 보는 데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하다"고 탄복을 자아냈다. 수석박물관과 민간정원 공사에 한창인 박병선 관장은 "여수, 전주, 대전, 인천,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수석박물관 유치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전부 거절했다"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순천에서 개관하게 돼 고향 사랑을 실천했다는 자부심 든다"고 웃음을 자아냈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시, 매실 경쟁력 높이고 판로 늘린다 대기업과 간담회 개최

광양매실은 소비자들이 선정한 '2021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서 7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매실 재배면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매실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9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실에서 매실을 대량으로 구입해 제품화하고 있는 기업을 초청해 광양매실 소비 촉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올해 광양매실은 3,713 농가에서 1,35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약 8,423여 톤이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심종섭기자

## 여수시, 12코트 규모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한창'

### 95억 투입...진남체육공원 전용구장 집적화로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기대'

여수시는 금년 1월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건립될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당초에는 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전용구장으로써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비 20억 원을 증액해 총 공사비 95억 원, 12코트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토목 터파기 공사와

건물 기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여수시 배드민턴 동호인 수는 38개 클럽 약 5천여 명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각종 대회나 평상시 망마 국민체육센터, 진남체육관 등 다목적 체육관을 주로 이용해 다른 종목 이용자와의 대관 문제 등 불편이 컸다. 진남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될 위치는 진남체육공원 내 야구장 바로 옆으로, 테니스장, 족구장, 체육관, 인

라인경기장, 수영장 등 기존 공공체육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각종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배드민턴 동호인은 "동호인들의 오랜 염원인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많은 시민들이 배드민턴을 즐기고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 고흥군,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고흥군은 지난 달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거래농가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1년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e-비즈니스 리더양성 과정은 농산물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경영혁신 CEO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5회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유통 마케팅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선도농가 현장학습도 실시하였다. 교육생들은 앞으로도 인터넷 직거래와 관련된 지식을 축적하는 한편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고품 농특산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련 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고객관리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여 미래 농산물 소비환경에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역대 최대 규모 재생 뉴딜사업 선정... 145억 원 투입

### 보성읍·별교읍 도시재생...지역경제 활성화 로컬문화 강화

보성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성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 유형으로 보성리 향교 일원에서부터 보건소 앞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지 일원(152,400㎡)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걸어서 보성 속으로,

젊음의 활력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보성'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동윤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세대 이름 마당 조성사업, ▲청년 로컬로드 조성사업, ▲다함께 상

생센터 조성, ▲도시재생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 등이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역 성장잠재력이 감소하는 시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유치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신흥동산 종합개발사업과 최대한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지역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별교읍 일원에서는 '별교읍 장좌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별교읍 별교리 온 동네 행복이음터 조성' 등 135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